보성 귀농 5년 박노신 씨…"토종 씨앗 알리기·환경운동 보람"

전남귀농귀촌운동본부 활동 등 마음의 쉼표 찾아

보성군 미력면 도개마을에는 '심휴정(心休亭)'이라 이름 붙여진 대문 없는 빨간 벽돌집이 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이 담긴 이 집에는 5년 전 서울에서 보성으로 귀촌한 박노신(여·71)씨 부부가 살고 있다.

서울에서 30여년간 부모교육 강사로 일했던 박씨는 사업 때문에 먼저 보성에 자리 잡은 남편을 보러 서울과 보성을 오가던 중 조용하고 한적한 거리에 핀 매혹적인 홍매화에 반해 보성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

보성에 자리잡은 그는 전남귀농귀촌운동본부의 토종 씨앗 알리기에 함께하고 있다. 또 환경을 위한 소창 손수건 등을 제작해 각종 시민·환경단체 행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친환경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박씨는 일주일에 한 번 '토종씨앗학교'에서 씨앗을 심고 거두며 주말마다 밭일에 나선다. 전남귀농귀촌운동본부 활동인 '씨앗에서 밥상까지' 교육과정에 참여해 토종 상추·고추·감자 씨앗을 심고 채종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귀촌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광주김치축제에서 직접 만든 바질페스토를 판매하기도 했다.

큰 방을 작업실로 꾸민 그는 직접 만든 손수건, 소창 행주, 파우치 등을 2023년 광주극장에서 열린 지구농장터 행사와 한새봉 개굴장 행사에 판매자로 참여해 저렴하게 내놓기도 했다.

서울 시절부터 품고 있던 '흙을 만지며 살고 싶다'는 그의 소망은 보성에서 구체화됐다.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꽃으로 가득한 마당을 돌보며 진정한 쉼을 느낀다. 그는 보성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는 귀촌 후 적응을 위해선 본인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처음 보성 오일장에 갔을 때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 꼭 야단맞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지만 나중에서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어르신들의 정(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을에 내 것을 내놓는다는 마음으로 회관에 음식과 물품을 선뜻 기부했고, 길가다 보이는 어르신들은 차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했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우리의 행동에 보답하듯 조용히 툇마루 위에 호박, 노각, 고추 같은 것을 두고 가시거나 고맙다며 천원짜리 지폐를 소중하게 내밀기도 하세요. 그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생색내지 않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죠."

박노신씨가 광주시 서구 유덕동에서 기후농부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노신씨 제공〉

서울에 살 때보다 더 역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그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 것이 꿈이다.

박씨는 "마을에서 읍내 도서관까지 8㎞나 떨어져 있어 마을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며 "마을노인회관 옆 빈 창고를 활용해 갖고 있는 책들을 창고에 전시해서 작은 마을 도서관으로 꾸미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대, 제7회 김정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전남대학교는 지난 29일 오전 대학본부 총장접견실에서 '제7회 김정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함평군 해보면 출신의 김정순 기부자는 평생 농사와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자비 1억원을 2019년 전남대학교에 기부했다.

그는 기부 이후 매년 4명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8명의 장학생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물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정순 기부자는 직접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며, 장학생들에게 학업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간직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스트 김동혁·허승철 교수 '고독한 아이디어들' 번역 출간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김동혁 교수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허승철 명예교수〈사진〉가 미국의 과학사학자 로런 그레이엄(Loren Graham)의 명저 'Lonely Ideas: Can Russia Compete?'를 공동 번역해 출간했다.

번역서는 GIST의 대학 출판부 '지스트 프레스(GIST Press)'를 통해 '고독한 아이디어들: 과학 강국 러시아는 왜 혁신하지 못했나?'라는 제목으로 지난 30일 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가 수많은 '세계 최초' 기술과 발명 성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산업적 성과로 연결하지 못했는지를 깊이 탐구한 저작이다. 제목 '고독한 아이디어들(Lonely Ideas)'은 지난 300년 동안 창의적 발명은 넘쳐났지만 그것이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러시아의 역설을 상징한다.

저자는 과학기술 발전이 단지 개인의 창의력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적 환경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혁신 없이는 기술의 혁신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대성 광주대 교수 한국금융공학회 우수 논문상

광주대학교 경영학과 정대성〈사진〉 교수가 지난달 31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 한국금융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정 교수가 지난해 한국거래소 연구과제를 단독 책임연구자로 수행하며 발표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성과와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기반 CoVaR 분석' 논문을 통해 일궈낸 성과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공동체, 필리핀 보홀섬 해외 봉사활동

사단법인 광주공동체가 5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보홀섬 바클라욘지역에서 제12차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공동체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해외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과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해외 현지에서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다. 봉사단은 현지 센트럴 초등학교의 천장 개·보수 공사를 비롯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염소 2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 지원과 의료용 소독약·마스크·수술복 등 위생용품, 구충제와 파스 등 생활의약품, 체육용품 등을 전달하며 교육·보건·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활동을 진행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10 동행(재)	10 셀럽병사의 비밀(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00 영민씨와 대단한 친구들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랄라 행복한 곰돌이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림 컴퍼니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친밀한 리플리 스페셜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55 2시 뉴스 외전	00 고향이 보인다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백투더뮤직 시즌 2(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캐리야 학교 가자(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탑클래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앙코르 특집 MBC 다큐프라임	00 SBS 오뉴스 30 캐리와 친구들(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재) 5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친밀한 리플리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개는 훌륭하다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별의별 토크 보고 보고 보고서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0 마지막 썸머(재)	50 MBC 뉴스 25	50 닥터 365
12	00 KBS 중계석 〈심포니 S.O.N.G〉	25 아이 러브 스포츠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이 강에는 달이 흐른다 프리미어 25 리얼 라이브	00 네모세모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 신비의 땅, 무스탕 -히말라야 소수 민족의 시간〉
07:0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30 엄마 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젬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8:50 슈퍼윙스 슈퍼콤보
09:20 똘비와 하잇희의 직장습격(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재)
16:3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7:00 페파 피그
17:10 레인보우 버블젬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재)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
18:10 EBS 뉴스
18:30 PD로그(재)
19:20 고향민국
19:5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재)
20:40 세계테마기행 〈365일 무비자, 조지아를 걷다! -물과 땅이 빚은 삶〉
21:35 한국기행 〈반짝, 열려요 4부 바람골 언니들〉
21:55 왔다! 내 손주
22:45 EBS 다큐프라임(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9월 17일 己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활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무의미하다. 48년생 마무리의 처리가 가치의 고저를 좌우한다. 60년생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2년생 입체적인 관점과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84년생 도중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가 나타날 수 있다. 96년생 현태의 추세대로라면 목표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35, 93

丑 37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49년생 기세가 등등하니 웬만해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겠다. 61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느니라. 73년생 추진하다 보면 해묵은 의문점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85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97년생 소잡함에 봉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59

寅 38년생 표리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탈이 없다. 50년생 파종은 힘들지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62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74년생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86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98년생 분명한 성과가 도출되겠다. 행운의 숫자 : 34, 77

卯 39년생 도토리 키 재기 식이니 별 의미가 없다. 51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63년생 방심한다면 잇따른 악재가 생길 수도 있다. 75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87년생 사리에 밝은 이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99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31, 76

辰 40년생 정리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52년생 장래의 전망을 밝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64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76년생 한 템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 88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00년생 시선을 사로잡고 귀기울이게 하는 바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5, 73

巳 41년생 자신감을 갖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53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성사시키기가 쉬워진다. 65년생 지금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니 마음 놓고 함께하여도 무방하다. 77년생 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89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이다. 01년생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는 기운이다. 행운의 숫자 : 49, 84

午 42년생 자산이 될 만한 것이 보이니 놓치지 말라. 54년생 머지않아서 길조가 상승할 것이니 수용할 대비를 하라. 66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즉시 조처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를 부른다. 78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길사가 중중하리라. 90년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02년생 인연은 새로우나 기대할 바는 못 된다. 행운의 숫자 : 15, 61

未 43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느니라. 55년생 구름이 빠르게 밀려가면서 맑게 개는 이치이니라. 67년생 재물과 은인이 사방에 보이는 형상이로다. 79년생 불협화음이 보인다면 주관적인 면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옳다. 91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03년생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자. 행운의 숫자 : 32, 64

申 44년생 빈 곳을 메우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결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니 설계를 잘 해야 한다. 68년생 때를 만났으니 한껏 포부를 펼쳐도 된다. 80년생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낫다. 92년생 전체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 04년생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03, 78

酉 45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는 하등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57년생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9년생 기조는 유사하니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 81년생 하나하나 따져보고 택해야만 후회하지 않는다. 93년생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 것이다. 05년생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2, 88

戌 46년생 호기가 주어졌을 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70년생 의문이 가는 대목이 있거든 속속들이 점검하라. 82년생 배려는 곧 경제적 이익이 되어 돌아오리라. 94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 하라. 06년생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니 우회로를 모색하자. 행운의 숫자 : 18, 97

亥 47년생 포괄적인 범위의 설정이 더 실효적이니라. 59년생 예비분의 확보가 꼭 필요한 판세에 놓여 있다. 71년생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83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95년생 갈급하고 있는 바는 보이지 않고 간접적인 것만 눈에 띈다. 07년생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7, 68